

#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박차'

### 군산시, 코로나 이후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

군산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여행 스타일이 대규모 단체 관광보다는 소규모 개별 관광, 가족단위 관광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시는 이에 맞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5일 공포해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시행규칙은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유치했을 경우(군산지역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여행사에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인 유치 인원수를 하향조정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실성을 반영했다.

개정 내용은 내국인(일본인)관광객 기준으로 볼 때 당일 관광객은 80명에서 15명으로 지원 금액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하고 최대 지원액은 3백만원이다.

숙박 관광객일 경우 30명에서 15명으

로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외국인(일본인)관광객일 경우 최소 인원 기준을 당일 관광객 8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지원액을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숙박 관광객 수는 기존과 동일한 10명으로 지원액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화여행단체의 숙박하였을 경우 내국인 수화여행단은 40명에서 20명, 지원금액은 2천원에서 5천원, 외국인 수화여행단은 30명에서 20명, 지원금액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했다.

또 관광호텔과 기타 숙박업소로 나눠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던 기준을 숙박시설별 구분 없이 동등하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미륵산골체험휴양마을이 농식품부가 주관한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 역사·문화체험 연계 프로그램

### 익산 미륵산권역, 농식품부 '농촌체험' 공모 선정

익산 미륵산골체험휴양마을이 농식품부가 주관한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해당 마을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선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농촌관광 회복을 위해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홍보·마케팅, 마을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마을은 단순 농촌체험관광에서 벗어나 미륵산 생태, 지역자원을 활용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특산물인 고구마 요리체험을 통해 홍보하고 최근 여행 트렌드를 반영

해 원과 치유가 있는 테마로 관광객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지역체험자원인 대파니 할링팜, 미륵산자연학교와 주변 역사적, 문화적 장소인 국립익산박물관 등을 연계해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을 위한 고품질의 프리미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이색적인 체험과 프로그램 개발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미륵산권역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구축과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농촌체험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문화공유도시 군산, 위한 시민활동 본격 추진

### 예비문화도시사업, 동네문화추진단 · 문화도시형 동네문화카페... 참여 시민 선정

2022년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이 동네문화추진단과 문화도시형 동네문화카페 참여 시민 선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군산문화도시센터를 통해 동네문화추진단 13팀, 문화도시형 동네문화카페 13팀을 각각 선정했다.

선정된 시민들은 지난 14~15일 양일에 걸쳐 시민 중심 문화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Kick-Off 미팅에 참여해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동네문화추진단은 시민이 군산 동네별 역사 및 지역 자산, 일상문화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활동으로 조사된 내용은 영상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아카이브로 구축될 예정이다.

문화도시형 동네문화카페는 지역문화를 주제로 시민 스스로 문화를 생산



2022년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이 동네문화추진단과 문화도시형 동네문화카페 참여 시민 선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고 공유하는 팀별 미션 활동으로 진행된다.

박성신 군산문화도시센터장(군산대학교 교수)은 "동네문화추진단과 동네

문화카페는 동네 단위로 시민 스스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예비문화도시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AI 기술로 상시 돌봄 체계 구축

익산시가 AI 로봇을 도입해 취약계층을 위한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말벗기능이 포함된 AI 로봇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독거 어르신들의 정서 지원과 응급상황대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전 전수조사에서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70가구를 발굴해 지난 13일부터 AI 인공지능 로봇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돌봄 AI로봇은 긴급상황 발생 시 위

협 상태정보 알림에서부터 복약 관리, 감염병 예방정보, 재난 문자 등이 음성 또는 영상으로 송출돼 휴대폰 문자를 읽기 어려운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로봇과 말벗 대화가 가능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우울감, 고독감을 완화시켜줄 뿐 아니라 동작 감지 기능이 있어 이상 상황 발생 시 보호자와 관리자, 관제센터에 즉시 연락해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일정 관리, 건강정보, 음악



감상 차매예방퀴즈, 실시간 뉴스 재생 등 개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자·관리자와 영상통화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1인 취약계층이면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대상자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장애인 재활복지 서비스 '강화'

익산시가 장애인들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자 바우처를 이용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2억원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이동가죽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사업,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등 총 7개 사업이며, 1천3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서비스 질 향상과 재활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8일부터 4주간 현장 방문을 통한 지

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4개소와 장애인일자리사업기관 2개소, 장애이동가죽지원사업 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공기관 운영실태, 바우처서비스 이용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 결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박남집 경로장애인과장은 "제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집해 신속하게 계획을 보완하거나 추후 서비스 계획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각 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재활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구독 · 광고문 063-288-9700

## 지역 소식 통

### 군산시, 정규일자리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군산시가 오는 29일까지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기업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 80%(최대 월 160만원)를 2년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6개 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이번 기업 추가모집을 통해 청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직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벤처기업과 강소기업에 청년근로자를 매칭해 고용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군산 소재 중·중소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또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시민 기록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익산시가 지역의 숨은 역사를 찾고 기록할 시민 기록 활동가를 양성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시민 기록 활동가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모현사립도서관 세미나실에서 6월 21일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마다 총 8회 진행된다.

역사, 문화, 기록(아카이빙), 스토리텔링 등에 관심 있는 익산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회 이상 참석한 이수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향후 민간 기록물 관련 시민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신청순 20명을 모집하며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서 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민기록활동가 양성과정 관련 문의를 비롯한 기록물 제보 및 기준 관련 문의는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계 (859-5723, 5713, 573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